



22112328



KOREAN B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SUPERIOR – PRUEBA 1

Friday 13 May 2011 (afternoon)
Vendredi 13 mai 2011 (après-midi)
Viernes 13 de mayo de 2011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인천대교



**“인천대교를 자전거로 달리자”
단 한번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정식 개통 앞두고 18일 열려
16세 이상 5000명 선착순 모집



- ① 서해 바닷바람을 가르며 인천대교 위를 자전거로 건너는 단 한번의 기회. 중앙일보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일(일) ‘인천대교 개통 기념 자전거 퍼레이드’를 연다. 인천대교는 송도 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 길이 21.38 km(다리 길이 12.34 km)로 국내에서 가장 길다. 사장교(斜張橋) 중에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다.
- ② 퍼레이드는 자전거 5000대가 인천대교를 왕복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참가자들은 18일 오전 8시 인천대교 동쪽 연수분기점을 출발, 영종도로 나가는 톨게이트 직전 반환점에서 송도로 되돌아온다. 왕복 35 km 코스다. 종착점인 중앙공원에서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개통(10월 23일 예정)이후 인천대교에서 자전거 이용은 불가능해진다.
- ③ 이번 행사는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인천시·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와 공동 주최한다. 참가자는 안전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했다. 참가 신청은 인터넷 (www.greenbikeexpo.co.kr)으로만 가능하다. 5일 낮 12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5000명이 되면 자동 마감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30인 이상 단체는 1인당 8000원씩이다. 문의 032-835-5217~8 (그린바이크엑스포사무국).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중앙일보

본문 B

심리학 열풍

① 대학 입시·출판·방송·경영 등 다방면에서 심리학 열풍이 거세다. 서점가·대학가·방송가 등에서는 ‘심리학’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취업 준비생, 대학 입시생, 결혼 적령기의 남성들이 [-X-] ‘심리학’에 빠져 있다.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치부되었던 심리학에 사람들은 왜 열광하는 것일까.



② 심리학의 인기는 대학에서 실감할 수 있다. [-12-]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심리학과’는 대표적인 비인기 학과 중 하나였다. 졸업 후에 갈 데가 없어 ‘백수 5분 대기조’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심리학과와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10년 전국 주요 대학입시를 보면 고려대의 경우 수시 일반 전형에서 심리학과가 15명 모집에 무려 1천4백33명(95.53 대 1)이 지원해, 인문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연세대에서도 문과대학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학 관련 학과들도 [-13-] 생겨나서 심리상담치료학과, 아동심리치료학과, 심리치료학과 등이 개설되었다. 서울대는 심리학과 산하에 ‘행복연구센터’를 설립했다.

③ 서점에서는 심리학 책이 [-14-] 팔리고 있다. 지난해에 출간된 심리학 책은 100권이 넘는다. 인터넷 서점과 서울 시내 대형 서점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자료를 보면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씨의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교수의 <도시 심리학>, 사회심리학자 이철우 박사의 <심리학이 연애를 말하다> 등의 심리학 서적들이 베스트셀러에 대거 진입했다. 출판 칼럼니스트 장동석씨는 심리학 책 인기의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자기 계발 열기에 지친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심리학 책에 관심을 갖거나,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알고 싶은 궁금증의 일환으로 심리학에 끌리고 있다고 했다.

④ 입시, 취업, 연애, 교육, 상담, 범죄 수사, 마케팅, 치료 등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도 심리학이 활용되고 있다. 범죄 수사 분야에서는 범죄심리분석관인 ‘프로파일러’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을 분석해 범인의 나이, 성격, 직업, 범행 수법을 추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범인을 심문한다. 범인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것도 프로파일러의 몫이다.

⑤ 기업체의 ‘감성 경영’은 이미 보편화되었다. 이런 경향은 택배업체들의 캐치프레이즈 변천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고객님의 물건을 소중하게 배달하겠습니다→고객님께 행복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고객님께 감동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라며 물건이 행복으로, 행복이 다시 감동으로 바뀌고 있다. 보내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다.

⑥ 이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심리학이 뜨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심리학은 모든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이유로 든다. 둘째는 개발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바뀌면서 물질적인 [-20-]보다는 정신적인 [-21-]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는 ‘소통의 부재’라는 큰 담론이 깔려 있다.

<시사저널> 2010.1.20

본문 C

틀니의 두 얼굴

- ① 지난 주에 이빨 두 개를 뺐다. 이미 내 이빨은 하나도 성한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온통 틀니*투성이이다. 내 이빨 중에서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빨은 하나도 없을 정도이다. 모든 이빨이 약해서 갈아 덧씌운 일종의 조각 작품이다. 그런데 이번의 틀니는 예사의 틀니와 다른 물건이다. 이번의 틀니는 잇몸 천장에 두터운 보철을 덧씌운 물건이다. 좀 심한 표현을 하자면 입 안에 재갈을 물고 다니는 느낌인 것이다.
- ② 적응력이 빨라 도망할 길이 없으면 없는 대로 팔자인가 보다 하고 잘 참고 견디는 나지만 이번의 틀니는 일종의 고문 도구 중의 하나인 족쇄의 느낌인 것이다. 입 천장에 재갈이 물려 있으니 말을 해도 예전처럼 혀가 잘 굴러가지 않아서 내가 들어도 내 발음이 생소하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랴. 이것이 거역할 수 없는 내 팔자인 것을. 하루에도 몇 번 씩 벗어버리고 싶은 고통을 참고 한 일주일 버텼다.
- ③ 3년 전쯤인가. 부분 틀니를 하고 나서부터 나는 껌을 씹지 못하였다. 껌을 씹으면 껌이 틀니에 붙어 /-X-/ 물어나서 씹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껌을 씹을 때면 입 안에 넣고 [-23-] 하다가 뱉어 버리곤 했었던 것이다. 껌째야 못 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이번 입천장에 달라붙는 재갈식의 틀니를 하고 보니 어느 순간 나는 내가 휘파람을 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우연히 기분이 좋아 휘파람을 불려는데 내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크게 놀라서 두세 번 더 [-24-] 휘파람을 불어 보았다. 그래도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는 나오지 않고 마치 병 모가지에 입을 대고 불었을 때 [-25-] 병소리가 나는 것처럼 새는 헛바람 소리만 [-26-] 나오는 것이었다. 그 원인이 입 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새로 한 틀니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솔직히 충격을 느꼈었다. 껌을 씹는 것이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젠 마침내 휘파람까지도 불 수 없는 한심한 중늬은이 신세가 되었구나 하는 쓸쓸한 생각이 났다.
- ④ 나는 어렸을 때부터 휘파람을 잘 불던 소년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고 하면서 못 불게 하곤 했었다. 특히 한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휘파람을 곧잘 불곤 했었다. 허기야 휘파람 못 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마는 내 휘파람 소리는 내가 들어도 힘차고 멋이 있었다.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는 영화의 주제가에 휘파람 소리가 나는 행진곡이 있는데 내가 그걸 휘파람으로 불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었다. 흘러간 팝송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도 휘파람으로 불면 여학생들이 나를 다시 보곤 했었다. 휘파람은 내 젊은 시절의 내 쓸쓸함과 고독을 달래 주던 유일한 악기였던 것이다.
- ⑤ 이제 나는 입속에서 휘파람 소리를 내지 못하는 반병신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슬프다거나 섭섭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살아가는 것은 [-30-] 하나씩 둘씩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길이 아닌가. 휘파람을 못 불면 어때. 휘파람을 부는 대신 노래를 부르면 되지. 언젠가는 그 노래조차도 못 부를 때가 올지도 모른다. 이빨 빠진 아내와 이빨 빠진 나는 불편한 이빨로 밥을 먹으면서 마음 놓고 껌을 씹을 수도 있고 마음 놓고 휘파람을 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 속으로 이렇게 [-31-] 한다. ‘휘파람을 불 수 있는 [-32-] 즐거움도 껌을 씹을 수 있는 [-32-] 즐거움도 사과를 한입에 베어 먹을 수 있는 [-32-] 즐거움도 행복이고 기쁨이나니 인생이여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라.’

최인호 <틀니의 두 얼굴> 샘터 1995.12

* 틀니: 인공적으로 만들어 잇몸에 끼웠다 뺐다 하는 이.

본문 D

영화예술학교 KFAI

한국영화의 1번지, 충무로. 최근 많은 영화 제작사가 서울 주변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영화하면 충무로’라는 상징성은 유효하다. 주변에 명동, 대학로, 동대문 등 문화적 혜택이 집중된 곳으로 둘러싸인, 대도시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다. 뉴욕의 중심부에 뉴욕필름 아카데미가 있다면 서울의 중심부 충무로에는 KFAI가 있다. 기말고사를 앞둔 KFAI를 12월8 일에 찾았다.

3학년 ‘영화연기분석’ 수업은 영화 속 배우들의 연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이곳에는 없다.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없이 주고받는 대화만이 있을 뿐. “감독을 하려는 친구들이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겪은 연기 디렉팅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꺼내는 경우가 많다”는 민병국 교수는 “나 역시 현장에서의 경험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오랫동안 교직원생활만 해온 교수들이 대부분인 다른 학교와 달리 KFAI의 강사들은 교수라는 학교와 현장을 오가고 있다”는 이성래 교학과장은 “그래서 학생들은 현장의 노하우를 수업에서 직접 배울 수 있다”고 한다.

학사과정(6학기)과 전문학사과정(4학기)으로 나뉜 교육과정도 실습 중심이다. 수준 높은 필름 메이커를 양성하는 과정인 학사과정은 영화의 기초에서 출발해 최종적으로 자신의 단편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편 시나리오 1편과 졸업 작품을 완성해야 한다. 때문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과 커리큘럼이 워크숍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졸업 뒤 4년제 대학졸업과 동일한 자격을 얻게 된다.

짧은 기간에 제작현장에 쓸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인 전문학사과정은 이론, 연출, 제작, 촬영, 편집 등 실무 중심 과정이다. 이성래 교학과장은 “최대한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리큘럼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정리하자면, 4년제 대학졸업 자격을 얻고 싶은 학생은 학사과정을, 빠른 결과를 원하는 학생은 전문학사과정을 선택하면 되겠다.

한편, 2011년부터는 영상연기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좋은 작품을 위해서는 좋은 배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장재진 제작실장의 말이다. 이는 KFAI의 장기적인 목표인 ‘학교 영화제작사 설립’과 관련있다. 학교 영화제작사란 말 그대로 ‘영화를 만드는 학교’다. 자체 영화제작을 통해 연기전공인 학생들은 배우로, 연출전공인 학생들은 감독으로 데뷔시킨다는 것이다.

1996년 네오영화아카데미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사립 영화전문교육기관인 KFAI는 영화예술에 대한 순수함을 강조한다. 이성래 교학과장의 말처럼 “KFAI는 수능이나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영화 제작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각오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시네 21> 2009.12.29